



추석가정예배



인도자 ----- 가족대표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이

찬송 -----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 다 같이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서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낱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대표기도 ----- 말은 이

성경봉독 ----- 시편 136:10~16 ----- 인도자

10.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1.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2. 강한 손과 퍼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4.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5.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6.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설교 -----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 인도자

말씀

오늘은 민족 명절인 추석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우르는 찬송시입니다. 천지창조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출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온 과정을 감사의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의 내용이 감사의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리기보다는 늘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에 기록된 노래는 그 광야 시절에 대해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평과 불만이 감사의 노래로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오면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고 참으로 아프기만 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에만 집중하다 보면, 마치 눈앞의 어려움과 고통이 전부인 양 쉽게 절망하고 좌절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을 넘어 존재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은 광야를 지난 후 그 모든 과정을 돌아보며 지은 시입니다. 그 모든 시간을 돌아보니 결론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밟아온 모든 목마름과 갈등과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부터 광야를 지날 때까지의 모든 사건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도 훗날 감사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원망과 불평보다 소망과 인내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 누구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까?' 어쩌면 인간으로서 이것은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롬8:28).

시편 136편에는 모든 절에 같은 문구가 반복됩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감사의 근거는 ‘영원한 인자하심’입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영원한 사랑’, ‘견고한 사랑’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견고한 사랑 때문입니다.

올 한해도 주님의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인자하심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배고플 때, 연약하고 피곤할 때,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고통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시련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손길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 말 은 이
찬 송 -----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 다 같 이

1.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4.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기도문 ----- 다 같 이

